관용 표현에 나타난 ‘산’의 개념화 연구

조경순*

- 목 차 -

Ⅰ. 서론
Ⅱ. 관용 표현의 개념
Ⅲ. 관용 표현의 의미 분석 방법
Ⅳ.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Ⅴ.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에 반영된 ‘산’의 의미와 인지적 도식을 찾고, 관용 표현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관용 표현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심리적인 접근 등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지 체계를 찾을 수 있는데, 관용 표현에 반영된 우리의 인식과 정서를 찾기 위한 일차적 작업은 언어적 분석일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을 분석하여 ‘산’의 의미가 관용 표현에 기여하는 양상과 은유 및 환유 도식 등 인지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인지적 대상으로서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지 체계 등을 살핀다.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을 확정하기 위해 먼저 관용 표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두 개 이상의 실질 단어가 결합하고, 개념적 의미의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합이 아니며, 담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이고, 종결형식 이외에는 굳어진 표현이라는 점으로 본다.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을 추출 및 분석하여 관용 표현에서 산의 의미는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물리적 공간과 크기에 관련된 의미들이 중심 의미와 1차적 관계를 맺고, 상징이나 인지적 도식에 의한 의미들이 2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다.

주제어 : 관용 표현, 산, 의미 구성, 인지적 도식, 은유, 환유

Ⅰ.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산 관련 관용 표현에 반영된 '산'의 의미와 인지적 도식을 찾고, 관용 표현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Gibbs는 "관용 표현은 단순히 말을 꾸미기 위해 의도한 언어적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편하게 하고, 텍스트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며, 인간 사고의 근본 패턴을 반영하는 언어의 통합적 부분이다."라고 하였다.[1] 또, Gibbs에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의 중대한 측면을 밝혀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2] 즉, 관용 표현

1) Gibbs, L, W., "Idioms and formulaic language In Geeraerts & Cuycken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p.697, 717, 721,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 Gibbs, L. W., 나익주 역, 『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2003, 367쪽.

에 대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심리적인 접근 등을 통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지 체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속담이 언어단위들로 구성된 만큼, 구체적인 속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은 속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으로 필수불가피한 작업이라면"[3] 관용 표현의 범위 안에 속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용 표현 역시 언어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관용 표현에 반영된 한국인의 인식과 정서를 찾기 위한 일차적 작업은 언어적 분석일 것이다.[4]

본고에서는 우리 자연의 주요한 지형인 '산'이 포함된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산은 "①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 ② 산소"[5]로 제시되어 있다. ①의 의미를 중심 의미, ②의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묻는 산소가 산에 있다는 공간적 인접성에 의해 산소라는 주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권에서는 묘소를 산에 두지 않기 때문에 "mountain"에 "grave"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점과 대비하면, 산이 묘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징이 언어의 의미 확장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6]

그런데 산이 포함된 관용 표현에서는 산의 의미가 묘소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다양한 인지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산 관련 관용 표현의 통사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어휘인 산은

---

3) 황경자 외, 『속담의 의미와 기능』, 태학사, 2002, 53쪽.

4) '관용어'라는 표현은 하나의 단어 차원이라는 연상을 주기 쉽고, 영어의 'Idiom'에 이끌려 '숙어'만을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용구'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 '구(句)'에 이끌려 속담과 같은 문장 단위의 관용 표현을 포괄할 수 없다는 면에서 구 형식과 문장 형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주경미, 2008: 20).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고려대 대사전에서는 "① 둘레의 땅보다 훨씬 높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 땅덩이. ② 시체나 유골 따위를 묻은 곳."으로 제시되어 있다.

6) 중국어와 일본어의 '山'의 뜻에는 산소라는 준말이 포함되어 있다.

관용 표현의 의미나 인지적 도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굳어진 표현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성요소가 표현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7]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산'의 의미가 관용 표현에 기여하는 양상과 은유 및 환유 도식 등 인지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인지적 대상으로서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지 체계 등을 살피고자 한다.[8]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1. (ㄱ) 무엇을 산 관련 관용 표현으로 볼 것인가?
   (ㄴ)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ㄷ)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에서 '산'의 의미 반영과 인지적 도식은 어떠한가?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을 목록화하고 그 용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산 관련 관용 표현의 목록을 기존 연구, 속담 사전, 백과사전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작성한다. 관용 표현 목록화의 기준은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등의 등재 여부가 아니라 관용 표현으로서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을 확정하기 위해 먼저 관용 표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분석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7) 송현주, 「관용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접근-의식주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31, 국제언어문학회, 2015, 73쪽.

8) 우리는 이미 산을 인지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산을 인간의 신체에 은유하여 신체의 윗부분에 있는 머리와 신체의 중간에 있는 허리에 빗대어 '산머리, 산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Ⅱ. 관용 표현의 개념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분석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산 관련 관용 표현의 목록을 선정하는 것이다. 산 관련 관용 표현을 목록화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관용 표현에 '산' 또는 'X산/산X' 어휘가 들어간 모든 표현을 산 관련 관용 표현으로 간주하는 방안과 산이 부차적으로 쓰일 뿐 산의 중심 의미나 주변 의미가 관용 표현의 의미에 반영되지 않아 다른 자연물로 바꾸거나 생략하여도 전체 관용 표현의 의미에 지장이 없으면 제외하는 방안이다.[9] 다시 말해, 관용 표현에 어휘적으로 '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산 관련 관용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의 개념과 속성을 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 관련 관용 표현을 목록화하고자 한다.

먼저, 관용 표현에 대한 주요 정의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2. (ㄱ) 관용어는 2개 이상의 단어로 결합되어 구나 문장을 이루는 어휘군으로서 개개단어의 의미 결합이 아닌 제3의 의미로 고정되어 화석화된 것을 말한다.[10]
>
> (ㄴ) "둘 이상의 단어 결합인 일정한 구의 형태가 통사적으로 굳어진 채 사용되고,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11]

---

9) 문금현(1999: 28-29)에서는 관용 표현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비유 표현, 간접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적 표현, 비논리적 표현 등은 광의의 관용 표현에 포함은 되지만 순수 관용 표현과 같은 협의의 관용 표현에서는 제외하였다.

10) 박영순,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119쪽.

11) 이상억,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3, 327쪽.

(ㄷ) '숙어'란 '둘 이상의 어절이 습관적으로 결합하여 쓰이면서 이들 낱말의 의미의 합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제삼의 의미를 지니는 구절들'을 일컫는 말로서, 의미상 더 이상 나뉠 수 없이 어휘화된 어절 결합을 말한다. 그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12]

선행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이 가지는 형태·통사·의미적 특징을 관용 표현의 정의로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의 속성을 규정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의 정의와 통사, 의미, 유형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 선행 연구에서의 관용 표현 정의와 특성[13]

(ㄱ) 김종택(1971), 체언형, 용언형

(ㄴ) 김문창(1974/1976), 숙어, 속담, 고사성어, 은어, 비유어, 금기어, 길조어, 수수께끼

(ㄷ) 심재기(1986), 1. 어휘적 차원의 관용표현: 숙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 금기어
2. 어구 및 문장차원의 관용표현: 속담, 고사성어, 금기담, 길흉담, 해몽담, 격언, 금언, 잠언, 수수께끼, 인사말 등.

(ㄹ) 안경화(1986), 숙어, 다의어, 관용적 복합어, 속담, 형식표현, 비유표현, 금기담, 은어, 사자성어

12)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356쪽.
13) 각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대신합니다.

(ㅁ) 양영희(1995), 숙어, 결속연어, 속담

(ㅂ) 이희자(1995), 1. 관용구: 숙어, 연어 2. 관용문

(ㅅ) 문금현(1996/1999), 1. 광의의 관용표현: 상용구절, 격언, 금기담, 순수 은유표현, 순수 직유표현, 비유표현, 인삿말, 완곡어법에 의해 생긴 상투적인 표현 등
2. 협의의 관용표현: 관용어, 관용구, 관용절, 관용문

(ㅇ) 민현식(2003), 1. 전래 관용표현(통시적 관용표현): 고사성어, 관용어구(숙어), 의례어, 욕설, 속담, 수수께끼, 전래설화
2. 유행 관용표현(공시적 관용표현): 유행성어, 유행어구, 유행의례어, 유행욕설, 유행속담, 유행수수께끼, 유행담.

(ㅈ) 박진호(2003), 숙어, 연어, 화용적 관용표현

(ㅊ) 권경일(2004), 숙어, 관용적 연어, 상투적 비유표현, 속담, 한자성어, 상투어구,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형태적 연어

이상과 같이, 관용 표현은 그 특성 상 형태·통사 구조나 의미 구성만으로는 개념을 한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구성이 관용 표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만규에서는 관용 표현의 범주적 정체성을 살피는 논의에서 관용 표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관용 표현의 특징[14]

(ㄱ)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어휘들의 결합이다

(ㄴ) 관용표현은 구성 어휘 요소들의 의미의 합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제3의 의미를 지닌다. 관용표현의 의미는 더 이상 나뉠 수 없다. 관용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 요소들의 개별적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ㄷ) 구성 어휘 요소들의 분포가 고정되어 있다. 즉 상호 필수적 공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만규(2003)은 관용 표현의 특성을 구성, 의미, 결합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4ㄱ)에서 '어휘'는 보통 단어 군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둘 이상의 어휘들"이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4ㄴ)에서 제시한 관용 표현의 의미적 특성인 "제3의 의미, 비분리적 의미, 개별 의미와의 비상관성"은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4ㄷ)에서 "상호 필수적 공기관계"는 일반적으로 공기 관계에 있는 요소 사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나 관용 표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기 관계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용 표현의 속성을 제시한다.

5. 관용 표현의 속성

(ㄱ) 두 개 이상의 실질 단어가 결합한다.

(ㄴ) 개념적 의미의 합이 아니다.

(ㄷ) 담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ㄹ) 종결형식 이외에는 굳어진 표현이다.

14) 박만규,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307~355쪽.

(5ㄱ)은 관용 표현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조사도 단어이므로 기존 연구에서 관용 표현의 구성적 특징으로 제시했던 “두 개 이상의 단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구성 요소나 어소라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의 구성적 특징을 “두 개 이상의 실질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제시한다. (5ㄴ)은 관용 표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합성성의 원리에 따르면 한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의미의 합과 문장 구조의 지배를 받겠지만, 관용 표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에 사용한 “제3의 의미”에서 “제삼”의 사전적 정의가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일부 관용 표현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제3의 의미”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5ㄷ)은 관용 표현의 담화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 (5ㄱ)과 (5ㄴ)을 충족하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담화 상황에서 해당 표현만으로 소통이 되지 않고 추가적인 해석이나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는 관용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5ㄹ)은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의 교체나 다른 요소의 삽입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뜻으로, 종결 형식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질적 단어뿐만 아니라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6. 관용 표현 “미역국을 먹다”

(ㄱ) 시험 합격 관련 담화에서: 미역국을 먹었어.

(ㄴ) 시험 합격 관련 담화에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더라.

(ㄷ) 미역국을 (안) 먹었어/끓였어.

시험 합격 관련 담화에서 (6ㄴ)은 (6ㄱ)과 같이 “시험에 불합격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개념적 의미의 합으로만 볼 수는 없

다.[15] 그러나 (6ㄴ)은 추론의 과정을 통해 "시험에 불합격했다."라는 의미를 청자가 도출하여 그 함축을 찾는다는 점에서 관용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6ㄷ)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의미로 "미역국을 안 먹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시험에 합격시켰다."라는 의미로 "미역국을 끓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관용 표현은 다른 구성 요소의 삽입이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관용 표현은 특정 맥락에서 관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기 때문에 오늘이 생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미역국을 먹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듯하다. 이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국수를 대접하기 때문에 "국수 먹다."가 "결혼식을 올리다."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직위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퇴짜를 맞을 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만 쓰인다.

다음으로, 관용 표현에 포함되는 구성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예문 (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관용 표현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보다는 관용적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적 특징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용 표현의 범위에 다양한 구성을 포함하였다. 이희자는 '관용구'의 범위를 폭넓게 잡아 '숙어, 의미적 연어, 통사적 연어, 형태적 연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으며[16], 박진호는 연어가 지니는 결합의 관습성은 통사론적 차원에서의 관습성이고, 숙어가 보이는 의미의 관습성은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관습성이고, 화용론적 관용 표현이 보이는 사용의 관습성은 화용론적 차원에서의 관습성이고, 복합어

15)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 "미역국을 먹다"의 뜻으로 "시험에서 떨어지다, 직위에서 떨려 나가다, 퇴짜를 맞다"를 제시하고 있다.
16) 이희자, 앞의 논문, 414쪽.

들 중에도 구성요소들의 의미로부터 규칙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는 것들 역시 그런 의미의 관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연어, 숙어, 복합어 등을 관용 표현에 포함하였다.[17] 주경미는 관용 표현의 하위 범주를 숙어, 관용적 연어, 관용적 비유 표현, 속담 등으로 분류하였다.[18] 이상의 논의에서 관용 표현의 기준은 그 형태·통사적 구조보다 의미적 특징이 우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5)에서 제시한 속성을 가지는 모든 구성을 관용 표현으로 보고자 하며, 속담, 관용구, 숙어, 연어 등이 포함된다.

Ⅲ. 관용 표현의 의미 분석 방법

관용 표현의 기준은 언어 내적인 조건이 관용 표현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며, 다시 의미·수사적 조건을 1차적 기준으로 내세울 수 있다.[19] 이와 같이, 관용 표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 표현의 의미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는

17)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365쪽.

18) 주경미,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주경미는 숙어는 관용 표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축자적인 의미를 갖는 구 구성과 관용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 대응쌍을 갖는 관용 표현을 말하고, 관용적 연어는 구성 요소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의미의 다의화를 거쳐 형성된 제3의 의미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연어를 말하는데, 관용적 연어는 숙어와는 달리 축자적인 의미가 의미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 관용적 의미만을 가진다고 보았다. 관용적 비유 표현은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 행동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만들어진 표현이 언중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일정한 형식으로 굳어져 관습적으로 쓰이게 된 구 구성체이고, 속담은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며, 의미적으로는 구성 성분들의 의미의 합 이외의 비유적 의미를 가지며, 화용적으로는 교훈성과 풍자성을 띠고 언중들에게 관습적으로 쓰이는 구성체이라고 하였다.

19)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1999, 36~39쪽. 문금현은 협의의 관용 표현에서 의미·수사적 조건과 형태·통사적 조건을 포함하는 언어 내적인 기준과 광역성, 대중성의 공시적 조건과 지속성, 역사성의 통시적 조건을 포함하는 언어 외적인 기준을 들어 관용 표현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아닌 제3의 굳어진 표현이라는 것이고, 다른 견해는 구성 요소의 의미가 은유적으로 또는 개념적 의미로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용 표현의 의미를 구성 요소의 의미의 합이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비합성성, 투명성, 중의성을 그 의미적 특징으로 논의한 것과 인지언어학의 개념화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바라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문금현은 의미의 비합성성을 관용 표현의 가장 특징적인 의미 특성으로 보았는데, 의미의 비합성성은 관용 의미가 구성 요소들이 지니는 축자적인 의미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구성 요소들의 축자적 의미의 합과는 무관한 제3의 의미라는 것이다.[20]

7. (ㄱ) 봄이 되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 온다.
   (ㄴ) 요즘 경기가 안 좋은지 쇼핑몰에서 공동구매 바람이 분다.
   (ㄷ) 저 애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도서관에 앉아 있지?

"바람이 불다"가 (7ㄱ)에서는 구성 요소의 축자적 의미가 모여 '바람이 일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날아온다'라는 의미가 생성됨에 비해, (7ㄴ)의 '유행이 되다'나 (7ㄷ)의 '무슨 일이 있어서'라는 의미는 구성 요소의 의미로부터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해, 관용 표현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결합하지만, 그 구성의 의미가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합성성의 원리를 크루스(Cruse, A.)에서는 복합적인 언어 표현의 해석을 지배하는 기본

20) 문금현, 앞의 책, 90~91쪽.

원리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1]

8. 언어 표현 해석의 기본 원리

(ㄱ) 문법적으로 복합적 형태의 의미는 그것의 문법적 구성소들이 가지는 의미들의 합성적 함수이다.

(ㄴ) 복합적 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소의 의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

(ㄷ) 복합적 표현의 의미는 일반 규칙에 의해 그 구성소의 의미들로부터 완전하게 예측된다.

(ㄹ) 모든 문법적 구성소는 전체 의미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크루스는 위의 원리는 'a white elephant(성가신 물건)'을 구성하는 각 구성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 그 의미를 해독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합성의 원리를 다시 형식화하여 제시하였다.

9. 언어 표현 해석의 수정 원리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 의미적 구성소[22]들의 의미에 대한 합성적 함수인데, 의미적 구성소란 그 복합체를 완전히 분할하며 적절하게 합성될 때 (완전한) 전체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합성성의 원리에 따라 다음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보자.

---

21) Cruse, A., 임지룡·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 태학사, 2002, 125~126쪽., 프레게(G. Frege, 1975)는 언어표현의 의미는 그 구성 성분들의 의미와 그 구성 성분들이 결합되는 통사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22) 의미적 구성소란, 동일한 문법적 부류에 속하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대치되어 다른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크루스, 2000: 131))

10. (ㄱ) 산이 높다.

(ㄴ) 산을 벗기다.

예문 (10ㄱ)은 복합 표현으로 “산이 높다”를 구성하는 ‘산, 높다, 이’는 각각 ‘건물, 탑…’, ‘낮다, 크다…’, ‘은, 만, 도…’ 등으로 대치되어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적 구성소이며, 적절한 합성을 통해 “산이 높다”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합성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ㄴ)에서 산에 있는 나무라는 의미로 산을 대체하거나, “베다”라는 의미로 “벗기다”를 대체하면 의미상 대조를 재현할 수 있는 다른 문장 문맥을 찾을 수 없으며, “산”과 “벗기다”가 적절한 합성을 거쳐 전체 의미인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 내다.”를 생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성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크루스에서는 관용 표현은 구성 요소들이 진정한 의미적 구성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합성적이라고 하였는데,[23] 이는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24]

그런데, 송현주(2015: 76-77)에 따르면, 전통적 관점의 관용 표현 연구는 관용 표현의 형식적,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사전 편찬과 한국어 교

23) 의미의 비합성성 외에도, 박만규(2003: 309)에서는 관용 표현의 핵심적 개념들로 의미의 불투명성, 의미분석 불가능성, 구성어휘의 다의성, 동음성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관용 표현의 의미적 기준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문금현(1999), 박만규(2003), 박진호(200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4) 최지훈에서는 전통의미론 관점의 연구들에서 관용구의 의미는 구성성분들의 의미 결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관용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로부터 관용구 전체의 의미를 추출해낼 수 없다는 ‘비합성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최지훈, 「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3쪽) 또한, 송현주(2015)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를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주로 관용 표현의 통사·의미적 특이성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연구 목표는 관용 표현의 성격 설정, 관용 표현의 기준 마련, 관용 표현의 목록 확정, 관용 표현의 형태·통사·의미·화용론적 특성 규명, 문형 정보 및 변이형 연구 등이라 하였다.

육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제시한 데는 기여하였지만 관용 표현의 사용 주체인 인간의 개념화 방식에 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은 분석 가능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언어 사용자의 개념적 구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관용 표현은 지각적 동기, 인지적 동기, 경험적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하였다.[25] 즉,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진행된 관용 표현 연구는 그 속에 담긴 개념화 방식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6]

11. (ㄱ) 한국의 외교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ㄴ) 이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ㄷ) 산 넘어 산이다.

[추상적인 복합체계는 식물이다]라는 상위 은유 하에, (11ㄱ)은 [과정에서의 유익한 결과는 식물의 열매이다]가, (11ㄴ)은 [복합체계의 유지나 처리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다]가 개념화한 것이다.[27] 산 관련 관용 표현인 (11ㄷ)에서도 이러한 개념화가 드러나는데, 사람이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지속해서 닥치는 것을 마치 여정에서 힘들게 산을 넘었으나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다]와 같은 은유 도식을 이용하여 관용 표현의

25) 송현주, 앞의 논문, 76~77쪽., 최지훈(2007)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관용 표현의 의미에 대해 '사은유설'의 입장을 취하나 관용구는 죽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로 은유성을 지닌다는 것이 인지언어학자와 심리언어학자의 실험으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26)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을 다룬 연구로는 임지룡(2006), 최지훈(2007), 나익주(2006), 심지연(2009), 이지용·심지연(2010), 강병창(2011), 송현주·최진아(2011), 김정아·송현주(2013) 등이 있다.
27) 최지훈, 앞의 논문, 120쪽

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관점을 관용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용 표현의 관용 의미가 구성요소인 단어들의 투명한 축어적 의미의 합성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즉, 관용 표현이라 부르는 것 중에는 구성요소가 지닌 어의(sense)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28] 이 논의에서는 다의어와 그 다의어를 구성요소로 삼는 관용 표현 사이에 깊은 의미적 관계가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남이 보는 것을 피하다'의 관용 의미를 지닌 '눈을 피하다'는 '눈'의 다의 중 하나인 '시선'과 '피하다'의 기본 의미가 결합하여 관용 표현의 의미가 생성된 것으로, '눈'을 구성요소로 삼는 관용 표현에는 자유결합과 유사한 구성 방법을 통해 관용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였다.[29]

그렇다면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은 어떠할까?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는 산의 기본 의미가 다분히 반영된 것, 제3의 의미로 쓰이는 것, 은유·환유 도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의미 구성 양상을 찾을 수 있다.

12. 산 관련 관용 표현

(ㄱ) 산 간 데 물 가고, 물 간 데 산 가는 법

(ㄴ)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ㄷ) 산 설고 물 설다.

---

28) 백석원, 「관용표현 구성요소의 다의성- 눈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9, 한국사전학회, 2012, 60쪽., 그리고 관용 표현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의 축자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 또 다른 연구로 하진희(2005)에서는 '손' 관련 관용 표현을 논의하면서, 관용표현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9) 이외에 '눈이 많다'도 '눈'의 다의 중 하나인 '시선'과 '많다'의 기본의미가 결합하여 '시선이 많다'는 관용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눈' 관용표현 중 약 1/3은 구성요소의 축어적 의미의 합성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ㄹ) 산 놈의 계집은 범도 안 물어간다.

(ㅁ) 산 너머 산

(ㅂ) 산으로 들어가다.

예문 (12)는 한국어 속담, 관용어, 숙어 사전 등에 등재된 관용 표현 중 '산'이 포함된 것이다. (12ㄱ)은 "서로 잘 어우러진다."라는 뜻으로 산은 물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으로 쓰였고, (12ㄴ)은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단점이 드러난다."라는 뜻으로 산은 가까이에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것이 좋은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 (12ㄱ)과 (12ㄴ)에서 산은 중심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이며, 주변 의미로서의 쓰임이나 은유와 환유와 같은 인지적 양상을 찾기 어렵다. (12ㄷ)은 "아주 낯선 곳"이라는 뜻으로 산은 아주 친숙한 곳임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며, (12ㄹ)은 "산에 사는 여자는 억척스러워서 호랑이조차 범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산은 살기 힘든 곳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ㅁ)은 "어떤 일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는 뜻으로, 산은 인간이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자연물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넘기 힘든 산을 넘어가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2ㅂ)은 "승려가 된다."라는 뜻으로 절이 산에 있다는 공간적 인접성에 의한 환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다양한 의미 구성 양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지혜나 철학, 해결 방안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자연물로서 구체적인 산을 비유나 비교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구성 요소인 산이 중심 의미와 제3의 의미로 쓰이는 양상과 인지적 도식을 살피고자 하므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분석하는 세 관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 사전 등에 등재된 관용 표현에 '산'이 어휘

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의 의미가 관용 표현의 의미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ㄱ) 산 속 토끼도 들구멍 날구멍을 판다.
(ㄴ) 산짐승이 집 안에 들면 불길하다.
(ㄷ) 산짐승이 집 안에 들어온 것은 잡지 않는다.

(13ㄱ)은 “미물이라도 제 살 방도는 스스로 마련한다.”라는 뜻이고, (13ㄴ)은 “산짐승이 쫓겨 들어오는 것은 불길하다.”라는 뜻이고, (13ㄷ)은 “산짐승일지라도 집에 들어온 것은 손님처럼 잘 대접해 보내야 한다.”라는 뜻이다. 각 관용 표현에서 산은 관용 표현의 의미에 기여하고 있지 않으며, 산을 인지적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본고의 목적은 ‘산’에 대한 인식과 인지 양상을 탐색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예문 (13)과 같은 관용 표현은 산 관련 관용 표현의 목록에서 제외한다.

Ⅳ.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관용 표현의 속성과 관용 표현의 의미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삼아,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진행은 산의 중심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관용 표현에 반영된 경우와 산에 관한 인지적 은유/환유 도식이 나타나는 경우로 나누어 살피겠다.

1. 산의 중심 및 상징 의미 관련 관용 표현

아래 관용 표현은 전체적 의미가 다른 상황을 빗대어 나타내고 있으나, 관용 표현 내에서 산은 자연물로서 의미 이상을 찾기 어려우며 인지적 도식화도 어렵다.

14. (ㄱ)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ㄴ) 산 속에 들어가서 구름잡기.
(ㄷ) 산에서 물고기 찾기.
(ㄹ) 산에 가서도 범을 피한다.

예문 (14ㄱ)은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14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려 한다는 뜻이고, (14ㄷ)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4ㄹ)은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것을 피할 방도가 있다는 뜻이다. (14)에 쓰인 산은 인지적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중심 의미로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문 (14)에서 산은 다른 자연물 즉 “사공이 많으면 배가 뭍으로 간다.”나 “뭍에서 물고기 찾기”와 같이 강이나 바다에 대비되는 곳으로 “뭍”을 쓸 수 있다면 관용 표현의 의미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며 다른 어휘로 교체되어도 관용 표현의 전체 의미에 변함이 없으므로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배가 가장 가기 어려운 곳”, “물고기를 잡기 가장 불가능한 곳”을 나타내는 곳으로서 산이 쓰였다는 점에서 산이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산의 중심 의미에 주

목하는 것도 관용 표현의 의미 구성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산이 중심 의미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산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이 중심 의미로 쓰일 때는 산과 관련한 자연물이 같이 등장하는데, 지형, 기후 등을 나타내는 것과 산에 사는 동물이 나온다. 먼저,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산이 자연을 대표할 때는 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5. (ㄱ) 산 간 데 물 가고, 물 간 데 산 가는 법
(ㄴ) 산에 가면 산길이 있고, 물에 가면 물길이 있다.
(ㄷ) 산에는 동삼, 바다에는 해삼
(ㄹ) 산에 가야 꿩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15ㄱ)은 서로 잘 어우러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다양한 자연물 중에 산과 물을 한 쌍으로 구성하였으며, (15ㄴ~ㄹ)에서도 대구 형식을 이용하여 선행절에서는 산을, 후행절에서는 물에 관해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산과 물이 자연을 대표할 만큼 매우 친숙한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은 물과 함께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자연 중 두드러진 지표(index)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6. (ㄱ) 산 설고 물 설다.
(ㄴ) 방앗공이는 제 산 밑에서 팔아먹으랬다.
(ㄷ) 산 밖에 난 범이요 물 밖에 난 고기라.

(16ㄱ)은 타향이라서 모든 곳이 낯설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산과

물은 매우 익숙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16ㄴ)에서 산은 무엇이 산출되는 본바닥을 가리키는 것으로, 방앗공이에게는 삶의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6ㄷ)은 호랑이가 산에서 나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산은 동물의 서식지를 가리키는데 이때의 산도 호랑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산이 평야, 벌, 황야 등 다른 자연으로 대치되어 쓰이는 관용 표현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우리가 살아왔던 터전에는 항상 산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산임수와 같이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래서 산은 물과 함께 인간과 동물의 터전임과 동시에 가장 두드러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은 삶의 터전을 가리키지만 항상 살기 좋은 곳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산 속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산이 척박한 곳을 의미한다.

17. (ㄱ) 산 놈의 계집은 범도 안 물어 간다.
(ㄴ) 산기슭에도 사람이 살고, 물기슭에도 사람이 산다.
(ㄷ) 산골 부자는 해변가 개보다 못하다.

(17ㄱ)은 외딴 산속에 사는 여자는 몹시 드세 만만치 않다는 뜻이고, (17ㄴ)은 아무리 좋지 않은 곳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뜻이며, (17ㄷ)은 산골보다 해변가가 훨씬 먹을 것이 많다는 뜻으로 이때의 산은 모두 외지거나 척박한 곳을 나타낸다. 또한, 산은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가장 동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18. (ㄱ) 산에서 물고기 잡기

(ㄴ) 산꼭대기에 앉아서 잉어 낚는다.

(18ㄱ)과 (18ㄴ)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려 한다는 뜻으로, 이때 산은 물고기를 잡기에는 가장 동떨어진 곳을 나타낸다. 이는 산과 물을 자연을 구성하는 큰 두 축으로 보았던 인식의 연장에서 물과 가장 대비되는 곳으로 산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 관련 관용 표현에 나오는 동물 중에는 호랑이와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

19. (ㄱ) 산 중 호랑이
(ㄴ) 산이 깊어야 범도 있다.
(ㄷ) 산에 가야 범을 잡지.
(ㄹ) 범 무서워 산에 못 가랴
(ㅁ) 깊은 산 속에서 목마르다고 하면 호랑이를 본다.
(ㅂ) 산으로 가는 꿩을 어미닭이 잡지 못한다.
(ㅅ) 산에서 노는 까마귀도 석 달 열흘이 지나면 부모 공을 갚는다.[30]

(19ㄱ~ㅁ)의 관용 표현 외에도 산과 호랑이가 함께 쓰이는 관용 표현이 많다. 동물과 산이 함께 쓰일 때 산은 동물의 터전으로서 서식지를 가리키거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하는 곳을 가리킨다.

산 관련 관용 표현의 구성적 특징으로 산과 물이 함께 나타나면 항

30) (ㅅ)에서 산은 중심 의미로만 쓰일 뿐 "누구나 부모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관용 표현의 의미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관용 표현은 본고의 논지에 따라 산 관련 관용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상 선행절에 '산'이 나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 (ㄱ) 물 간 데 산 가고, 산 간 데 물 가는 법
(ㄴ)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동삼
(ㄷ) 물 설고 산 설다.
(ㄹ) 물 밖에 난 고기요, 산 밖에 난 범이라.

관용 표현 (15), (16) 등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열이나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므로 산이 중심인 절과 물이 중심인 절을 앞뒤로 바꾼 예문 (20)에서 전체 관용 표현의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선행하는 관용 표현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산이 선행할까?

21. (ㄱ) 민수는 행복하지만 가난하다.
(ㄱ′) 민수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죽어서 노트를 남긴 어떤 수학자들도 있었다.[31]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는 후행절에 초점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21ㄱ, ㄱ′)은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동일하지만 그 주제적 의미가 다른데 윤평현(2008: 58)에서는 후행절에 더 초점이 놓여 있다고

31) 대전일보, 이야기가 있는 수학산책(2016. 11. 8.)(http://www.daejonilbo.com/news/ newsitem.asp?pk_no=1237977

하였다. 또한, 예문 (21ㄴ, ㄴ′)에서는 (21ㄴ)의 구성만으로 현대화된 관용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그러나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물이 중심인 절에 더 초점이 놓인다고 볼 수 없다. 예문 (20)과 같이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성을 바꾸어도 관용 표현이 빗대어 표현하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후행절만 분리하여 관용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 것을 관용 표현에서 먼저 배치한 것으로 즉, 합성적 구성의 어순에 반영된 도상성으로서 현저성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32] 현저성의 원리란 두드러진 쪽을 그렇지 않은 쪽보다 먼저 지각하는 성향이다.

22. (ㄱ) 감각: 장단, 고저, 원근, 강약, 다소
    (ㄴ) 집단: 여야, 군신, 주종, 처첩
    (ㄷ) 지명: 경부선, 경춘가도
    (ㄹ) 성별: 부모, 자녀, 남녀, 신랑신부, 형제자매
23. 산하, 산천, 산택, 강산

예문 (22)와 같이, 복합 구성에서 적극적 요소를 선호하거나 힘이 있는 쪽을 앞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문 (23)에서도 산과 물이 합성어를 구성할 때도 주로 '산'이 선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연이나 영토를 나타내는 어휘에서 "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은 "강(江), 하(河), 천(川), 택(澤)"과 같이 대치가 된다. 이는 우리에게 산이 물에 비해 자연으로서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3] 따라서 자연

32)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386쪽.
33) 필자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도 대부분 지역에서 무등산을 볼 수 있지만, 광주천이나 황룡강, 극

으로서 더 두드러지고 현저한 산이 중심인 절이 선행절로 나오고, 물이 중심인 절은 후행절로 쓰이며 후행절에서 물은 “물, 바다, 강”과 같이 교체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산 관련 관용 표현을 통해 산은 삶의 터전을 가리키지만 풍족한 곳이 아닌 외지거나 척박한 곳을 가리킬 수 있으며, 물과 함께 우리의 터전을 구성하는 자연의 두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았다.

2.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은유·환유 구조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는 산이 은유 도식에 의해 어떠한 것을 은유화하고 있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통해, 산 관련 관용 표현에서 찾을 수 있는 은유와 환유 도식을 찾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산을 어떠한 인지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은유적으로 관용 표현에 반영하는 방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산 관련 관용 표현의 은유

은유는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 은유, 물리적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방향적(지향적) 은유, 추상적 관념을 개체화하여 이해하는 존재론적 은유로 구분할 수 있다.[34] 구조적 은유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근원 영역의 도식을 중심으로 목표 영역으로 사상되는 것을 말한다.[35] 방향적 은유는 공간적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상호관계 아래 하나의 전체적 개념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

락강은 하천 주변이나 높은 빌딩에서 볼 수 있다.

34) Lakoff, G. & Johnson, M.,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박이정, 2006.

35)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178쪽.

하는데, '위-아래, 오른쪽-왼쪽, 가운데-가장자리' 등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은유화된다. 존재론적 은유는 추상적인 경험을 물체나 내용물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간, 마음, 이론, 언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경험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여 나타낸다.

24. (ㄱ) 구조적 은유의 예: 여행 도식 - 사랑은 여행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ㄴ) 방향적 은유의 예: 많음은 위쪽, 적음은 아래쪽 - 봉급이 올라간다 / 내려간다.
(ㄷ) 존재론적 은유의 예: 마음, 곧 그릇 속의 내용물은 액체이다 - 사랑이 넘친다

먼저, 산이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을 살피기로 한다.

25. (ㄱ) 산 넘어 산이다.
(ㄴ) 산은 갈수록 높고, 물은 갈수록 깊다.
(ㄷ)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ㄹ) 산이 높아도 오를 사람이 있고, 길이 멀어도 갈 사람이 있다.

(25ㄱ)과 (25ㄴ)은 어떤 일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뜻이고, (25ㄷ)은 앞에도 높은 산이고 뒤에서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난처한 지경이라는 뜻이며, (25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할 사람은 하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25)의 관용 표현들에서 '산'은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벽에 부딪치다, 벽을 없애다, 담을 쌓다" 등에서 [장애물은 벽이다/담이다]라는 사물 은유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예문 (25)에도 [장애물은 산이다]와 같은 사물 은유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큰 바위나 절벽 등 쉽게 치우지 못하거나 오를 수 없는 것으로 관용 표현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산'이 쓰인 것은 과정 영상도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Pena는 [과정은 경로를 따르는 이동이다]라는 은유적 사상에 따라 과정 영상도식이 발생한다고 하였다.[36]

26. 과정 영상도식 [과정은 경로를 따르는 이동이다.]

근원영역		목표영역
출발점	→	행동의 시작
경로상의 지점	→	수행할 행동
끝점	→	목표 달성

과정 영상도식의 주요한 구조적 요소는 출발점, 행선지나 끝점, 어떤 방향성이다.[37] 이러한 과정 영상도식으로 관용 표현을 분석한다면, (25ㄱ)은 산을 넘어 가는 과정을 근원 영역 도식으로 하여 목표 영역인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으로 사상하는 것이다.[38] 즉, 높고 험한 산은 인간이 넘어 가기에 어려운 대상으로, 이 산을 넘어가는 과정이 과정 영상도식화되어 관용 표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산 관련 관용 표현에 "넘다, 가다, 오르다"와 같은 이동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6) Pena, M. S., 임지룡·김동환 옮김, 『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37) Pena, M. S., 앞의 책, 264쪽.
38) 그러나 관용 표현에서는 산을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결국 해야 할 사람은 하게 마련이라는 인식을 (25ㄹ)을 통해서 볼 수 있다.

27. 과정 영상도식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다]

근원영역		목표영역
산길 출발점	→	어려움 극복의 시작
산길 경로	→	수행할 행동
산길 끝점	→	어려움 극복

산을 넘어가기 위해 산길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경로를 거쳐 끝점에 도달하여 산을 넘어가는 것이 근원영역이라면, 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정한 행동을 시작하고 그 행동을 수행하여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는 목표영역으로 사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대함, 많음, 높음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산을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28. (ㄱ) 모래알도 모으면 산이 된다.
(ㄴ) 산더미 같은 고기요, 숲 같은 포다.
(ㄷ)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 기세
(ㄹ) 산이 깊으면 토끼와 범이 함께 산다.

(28ㄱ)은 아무리 작은 것도 모으면 거대한 것이 된다는 뜻이고, (28ㄴ)은 맛있는 음식이 널려 있다는 뜻이다. (28ㄷ)은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내려는 기세를 나타내는데 이때 산과 바다는 절대 허물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넓은 것을 가리킨다. 산은 우리가 인식하기에 가장 거대한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거대함은 산이다]라는 존재론적 은유 도식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28ㄷ)처럼 바다가 가장 넓은 것을 나타내는데, 관용 표현에서는 산이 [광대함]을 나타낼 때도 있다. (28ㄹ)은 포용력이 큰 사람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때 산은 높음을

전제한 거대함보다는 넓음을 전제한 거대함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 표현 (28)에서는 [광대함은 산이다], [많음은 산이다], [넓음은 산이다]와 같은 은유 도식을 찾을 수 있다.[39]

다음은 산의 높이와 관련된 은유 도식을 분석할 수 있는 경우이다.

29. (ㄱ)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ㄴ) 산이 크면 울림도 웅심 깊다.

(29ㄱ)은 품은 뜻이 높고 커야 품은 포부나 생각도 크고 깊다는 뜻이다. 훌륭한 뜻을 가지는 것을 "뜻이 높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은 위쪽]이라는 지향적 은유 도식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면, 예문 (29ㄱ)은 자연 지형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9ㄴ)은 권세가 높으면 남에게 넉넉히 베풀 수 있다는 뜻인데, 인간이 가지는 영상도식 중에 "힘 있는 것은 위쪽, 힘 없는 것은 아래쪽"이라는 도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지훈(2010: 12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는 좋음/많음/힘 있음/기쁨] 등으로 나타내고 [아래는 나쁨/적음/힘 없음/슬픔]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30. (ㄱ) 발 아래로 보다.
(ㄴ) 정상에 우뚝 서다.

예문 (30)은 [높은 지위는 위다 : 낮은 지위는 아래이다] 은유가 작용한 관용 표현인데, "은유는 자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39) 심사과정에서 "산이 깊으면"은 [있음], [많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타당한 관점이나 본고에서는 산이 물/바다와 같이 광대함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적 경험에 뿌리박고 있으므로",[40] 공간에서 위쪽에 있는 것은 높은 것이고, 높은 것은 산이므로 산이 힘 또는 권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29ㄴ)에서 권력, 권위, 권세 등이 많이 있음을 '높다'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것은 위쪽]이라는 지향적 은유 도식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산을 인지적 대상으로 바라보아 관용 표현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1. (ㄱ) 산 목을 구름이 조르면 비가 온다.
(ㄴ) 산봉우리가 구름관을 쓰면 비가 온다.
(ㄷ) 산허리 자르면 비 온다.
(ㄹ) 산이 우니 돌(산돼지)이 운다.
(ㅁ) 산이 울면 들이 웃고, 들이 울면 산이 웃는다.

(31ㄱ, ㄴ, ㄷ)은 비가 온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을 마치 인간의 신체처럼 생각하여 산에 목이나 허리와 같은 신체 부위가 있거나, 관을 쓸 수 있는 머리가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31ㄹ, ㅁ)은 산이 마치 감정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유정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산 관련 관용 표현의 환유

환유는 한 실재물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41] 환유는 지칭 기능과 인접성을 띠고 있는데, 지칭 기능은

40) Lakoff, G. & Johnson, M.,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박이정, 2006, 41쪽.
41)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22쪽.

그것과 관련된 다른 실재물을 지칭하기 위해 한 실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지칭 기능은 지시물 사이의 인접성에서 비롯된다.

32. (ㄱ) 뚝배기가 끓고 있다.
(ㄴ) 민수는 봉준호를 좋아한다.
(ㄷ) 수지는 콜라를 사서 한 캔을 한 번에 마셨다.
(ㄹ) 민수는 머리가 없다. 찬바람이 불자 민머리가 추워서 모자를 썼다.

예문 (32ㄱ)은 '뚝배기'라는 그릇의 이름이 뚝배기 안의 음식물을 가리키고 있으며, (32ㄴ)에서 '봉준호'는 영화 작품들을 가리킨다. (32ㄷ)은 마시는 것이 '캔'이 아니라 캔 안에 담긴 음료인데, 이때 캔은 캔 안에 들어 있는 음료와 공간적으로 인접하다는 것을 가리킨다.[42] (32ㄹ)과 같이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머리카락이 자라는 머리로 나타내는데, 이것도 공간적 근접성에 의한 환유로 볼 수 있다.

33. (ㄱ) 산으로 들어가다
(ㄴ) 산을 벗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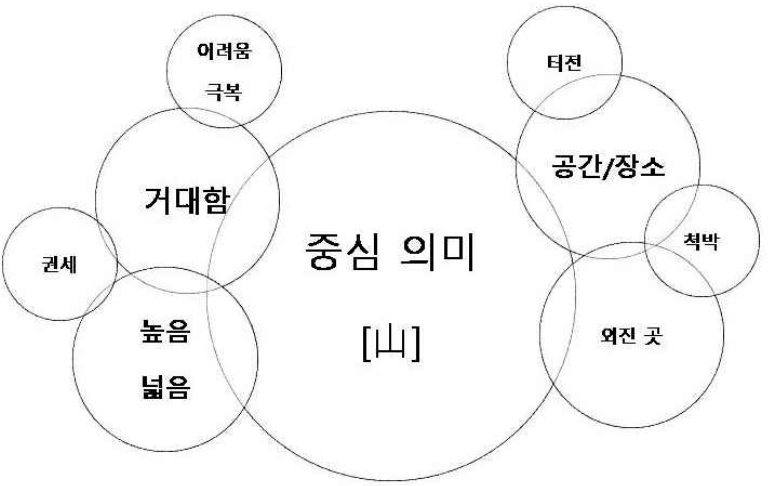
(33ㄱ)은 승려가 된다는 뜻으로, 승려가 사는 절이 산에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라고 할 수 있다. (33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 낸다는 뜻으로 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산으로 환유적으

42) 임지룡(1997: 200)에서는 그릇류에서 환유적 기능이 발휘되는 모습은 정도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는 한 병의 술/술 한 병/한 병을 마셨다."에서 환유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 경우는 세 번째라고 하였다.

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산에 나무가 없을 때 '벌거숭이 산'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 역시 사람이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은 알몸뚱이 상태를 산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산과 관련한 관용 표현에서 산의 의미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 도식은 산의 중심 의미를 기준으로 물리적 공간과 크기에 관련된 의미들이 중심 의미와 1차적 관계를 맺고, 상징이나 인지적 도식에 의한 의미들이 2차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는 산 관련 관용 표현이라는 한정된 구문만을 다루다보니 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과 인지 체계를 종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산의 의미와 인지적 양상을 살핌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문화,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문금현,『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1999.

윤평현,『국어의미론』, 역락, 2008.

임지룡,『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황경자 외,『속담의 의미와 기능』, 태학사, 2002.

Cruse, A., 임지룡·김동환 역,『언어의 의미』, 태학사, 2002.

Gibbs, L. W., 나익주 역,『마음의 시학: 비유적 사고·언어·이해』, 한국문화사, 2003.

Lakoff, G. & Johnson, M., 노양진·나익주 역,『삶으로서의 은유 수정판』, 박이정, 2006.

Lakoff, G., 이기우 역,『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Pena, M, S., 임지룡·김동환 옮김,『은유와 영상도식』, 한국문화사, 2006.

Taylor, J, R.,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 논문

강병창,「독일어와 한국어 손 관용구의 비유적 의미구성 비교 -은유, 환유, 은환유를 중심으로」,『독어교육』50,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1.

강위규,「우리말 관용 표현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권경일,「국어 관용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김문창,「국어 관용어의 연구-숙어 설정을 중심으로」,『국어 연구』30,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1974.

김문창,「국어 관용어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5.

김정아·송현주, 「친족어 관용 표현의 개념화 양상」, 『언어과학연구』 64, 언어과학회, 2013.

김종택, 「이디엄(Idiom) 연구」, 『어문학』 25, 한국어문학회, 1971.

나익주,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민현식,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 의미학회, 2003.

박만규, 「관용표현의 범주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박영순, 「관용어에 대하여」, 『선암 이을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5.

박진호, 「관용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백석원, 「관용표현 구성요소의 다의성- 눈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9, 한국사전학회, 2012.

송현주·최진아, 「인지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 표현 교육 연구」, 『중등교육연구』 59-3, 중등교육연구소, 2011.

송현주, 「관용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접근-의식주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31, 국제언어문학회, 2015.

심재기, 「한국어 관용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1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심지연,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안경화, 「한국어 숙어의 유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양영희, 「관용표현의 의미 구현 양상」, 『국어학』 26, 국어학회, 1995.

이상억, 「관용표현과 합성어의 분석 및 어휘부 내외에서의 처리」, 『어학연구』

29-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3.
이선희, 「영어 관용어의 개념과 특성」,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재춘,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이지용·심지연, 「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 의미학회, 2010.
이희자,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임지룡,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주경미, 「20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최경봉, 「국어 관용어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최지훈, 「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황희영, 「한국 관용어 연구」, 성곡논총 9, 성곡학술문화재단, 1978.
Gibbs, L, W., "Idioms and formulaic language In Geeraerts & Cuycken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사전류

박영준·최경봉 편저, 『관용어 사전』, 태학사, 1996.
송재선, 『우리말 속담 큰 사전 재판』, 서문당, 2006.
정종진, 『한국의 속담 용례 사전』, 태학사, 1993.
정종진, 『한국의 속담 대사전』, 태학사,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an(mountain)' in the Idiomatic Expressions.

Jo, Kyeong-su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schema of 'mountain' in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mountai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levant idiomatic expressions. Through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psychological approach to idiomatic expression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our thought process and cognitive system. The first step to understanding our perception and emotion reflected in idiomatic expressions is linguistic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semantic composition of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mountain and the pattern and metaphorical and metonymical schemata by which the meaning of mountain contributes to the idiomatic expressions, in order to investigate human cognitive system toward mountains as a cognitive object. To define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mountain, in this stud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required in idiomatic expressions: first, two or more words were combined; second, they were not combined in the conceptual sense, are used idomatically in converstions; and, are a fixed expression except for the final forms.

And, this study found that, in idiomatic expressions, the meanings of mountain that are related to the physical space and size form primary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meaning of mountain and symbolic or schema-based meanings form the secondary meaning.

Key words : idiomatic expressions, mountain, semantic composition, cognitive schema, metaphor, metonymy

이 논문은 2017년 9월 14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22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7년 9월 29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